

AIDS NEWS

탈리도마이드 에이즈환자에 효과

탈리도마이드가 기형아 출산을 야기하는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고동스런 구강 궤양의 치료에 달리 방도가 없는 에이즈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브롱크스 재향군인 메디컬센터와 뉴욕 마운트 사나이 의과대학의 제프리 야콥슨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誌 최신호에 게재된 연구보고서에서 그들이 에이즈 환자 29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탈리도마이드를 투여한 결과 환자들중 절반 이상이 구강궤양치료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신기 여성들이 탈리도마이드 치료를 받으려면 충분한 안전조치를 바탕으로 담당 의사와 위험성에 대한 상담을 해야 하며 2주일마다 임신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스턴 UPI=聯合)

에이즈 화실 뒤엎는 새 연구결과 나와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들이 예상과는 달리 인체면역체계내에서 면역세포를 죽이는 단백질이 일반인보다 오히려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美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CWRC) 병리학과 교수 데이비드 카플란 박사 연구팀은 미과학아카데미 학회보 최신호를 통해 HIV 감염자들이 T림프구를 죽게 만드는 단백질인 파스리간드(FAS LIGAND)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카플란 박사는 "인체내의 T림프구 결핍이 HIV 감염의 특징이 돼왔기 때

문에 과학자들은 HIV감염자에게서 이를 제거하는 파스 리간드가 증가할 것이란 생각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 통념과 완전 상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파스 리간드 단백질 결핍이 바이러스 생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결합이 있는 파스 리간드 분자를 대체해 주는 치료법이 HIV의 돌연변이 및 저항력 생성 등과 관련된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치료법이 인체면역 기능에 역효과를 주지 않고 바이러스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정 바이러스성 단백질의 억제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저항력을 길러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리블랜드 UPI=聯合)

산모의 아기 HIV감염 예방 가능

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가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아기가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엄마로부터 HIV에 감염되는 것을 거의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에 있는 카르테비르츠 클리닉의 약셀 세퍼는 임신부에게 항바이러스약을 투여하는 치료법과 산고가 시작되기 전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혼용하는 이 새로운 의술로 현재 18%에 달하는 유아감염률을 2%로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항 바이러스 약물치료가 태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이 방법을 이용한 결과, HIV감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아기 89명 중 지금까지 HIV에 감염된 아기는 한명도 없다.

세퍼는 그러나 "우리는 HIV가 어떻게 엄마에게서 아이에게로 전염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감염이 결코 완전히 예방되지 않을 것임을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에이즈환자 지원단체의 마라 자이베르트는 항바이러스 혼합요법이 또한 HIV감염 산모의 예상수명도 크게 연장시켰다고 말했다. (베를린 dpa=聯合)



독일의 에이즈예방 포스터

3개 에이즈 치료제 초기 혼합 투여 권고

일단의 국제 에이즈 전문가들은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의 핏속에서 HIV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HIV수를 낮추기 위해 3가지 HIV억제제의 혼합약제를 환자에 조기 투여, 감염초부터 강도높게 HIV를 공격해야 한다고 의사들에게 권고했다.

美의학협회(AMA)誌 최신호에 게재된 국제 에이즈 위원회 미국지부(IAS-USA) 보고서는 지난해 발표된

AIDS NEWS

1997년 11월 14일 토요일 (11월 14일) 1997년 11월 14일 토요일 (11월 14일)

연방 에이즈 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수용, 3가지 HIV억제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이른바 '칼테일 처방'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IAS-USA와 연방 위원회가 제시한 새 가이드라인은 HIV 감염 환자들이 면역결핍증세를 보이기 이전에 칼테일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장했다.

임상 실험 결과, 혈장내 바이러스의 수를 낮출 경우 에이즈 발병이 억제되는 것은 물론 일부 환자는 증세가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됐었다. (시카고 UPI=연합)

동성연애자의 러브호텔 출입 합법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는 지금까지 법으로 금지해온 동성연애자의 러브호텔 출입을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정, 이를 허용키로 의결했다고 아르헨티나 신문들이 최근 보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

인도 인구문제-에이즈 퇴치에 주력

레누카 초우드허리 인도 신임 보건 장관은 6월12일 곧 10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의 인구 문제와 확산 일로에 있는 에이즈의 위협에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또 에이즈 환자수에 있어서도 세계 최다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현재 25만명이 에이즈 환자며 약 5백만명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엔은 오는 2000년까지 인도의 에이즈 환자가 5백만명으로 늘어나 세계 최다 에이즈 환자 보유국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뉴델리 AFP=연합)

美 에이즈 백신개발 국가목표 선언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현대의학이 개발해내지 못하고 있는 에이즈 백신을 향후 10년 이내에 발견하는 것을 미국의 국가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향후 10년 이내에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이러한 계획의 첫승리로 만들자"면서 "미국이 이를 개발하겠다고 공약할 경우 목표는 반드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베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美국립보건원(NIH)에 30~50명의 연구팀으로 백신 개발연구센터를 설립, 에이즈 백신 정복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

아프리카 에이즈 경제적 피해 심각

에이즈 퇴치를 위한 유엔기구는 최근 조사 결과 케냐의 일부 기업은 에이즈로 인해 연간 이익의 약 4%까지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기관들로 구성된 HIV-에이즈합동유엔계획은 또 말라위의 경우 교사의 3분의 1 가량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돼 있다고 보고했다.

조사보고서는 에이즈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력의 4분의 1이 에이즈에 감염될지 모른며 경제성장은 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간다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날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합동유엔계획의 후원 아래 4일간

의 일정으로 회담을 개최, 아프리카 정부간 협력관계구축 등 에이즈퇴치를 위한 공동노력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제네바 UPI=연합)

러시아서 에이즈 놀라운 속도 확산

러시아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건관리들이 밝혔다.

러시아 에이즈예방치료센터의 바담 포크로프스키 소장은 올 1월부터 5월중순까지 1천6백19명이 새로 HIV 보균자로 확인됐으며 러시아의 전체 HIV보균자는 4천2백26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포크로프스키 소장은 또 러시아에서 에이즈가 처음 발견된 이래 지난 10년동안 에이즈관련 질병으로 총 1백80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AFP=연합)

어린이 에이즈 감염자 치료에 디다노신이 더 효과적

HIV에 감염된 어린이들을 치료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도부딘보다 디다노신이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고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최신호가 보도했다.

생후 3개월부터 18세까지 8백 31명의 에이즈 양성반응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도부딘과 디다노신을 각각 투여하거나 혼합투여한 결과 디다노신만 투여한 그룹은 두가지 약품을 함께 투여한 그룹과 비슷한 치료효과를 나타냈으며 빈혈 등의 합병증 발생률도 낮았다고 연구진이 보고했다. (워싱턴 AFP=연합)

AIDS NEWS



동성애자들을 위한 뉴질랜드 에이즈 예방포스터

日 3~4월중 에이즈환자 97명 추가

일본 전역의 의료기관에서 지난 3~4월 두 달 동안 97명의 에이즈 환자 및 HIV(에이즈 바이러스)감염자가 새롭게 보고됐다고 후생성의 에이즈 감독위원회가 밝혔다.

97명의 새로운 HIV 감염자중 37명은 에이즈환자며 나머지는 HIV양성 반응자이다. 이들중 76명은 남자, 21명은 여자이며 내국인은 64명, 외국인인은 33명이다. 39명은 이성과의 접촉을 통해, 24명은 동성애를 통해 감염됐다고 이 위원회는 공개했다. (東京 共同=聯合)

日 혈액제제중 HIV 고감도 검출법 개발

일본 후생성의 국립감염증연구소는 혈액중 에이즈바이러스(HIV)를 고감도로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이는 HIV가 갖는 유전자의 단편인 RNA(리보핵산)를 직접 검출하는 방법으로써 혈액제제를 HIV를 높은 정

밀도로 검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연구소측은 혈액제제에서 RNA유출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단백질 분해 효소를 넣거나 온도를 높이거나 하는 등의 처리를 하고 유출농도를 높인 결과 추출된 RNA는 유전자를 단시간에 늘이는 PCR법(폴리멜라제 연쇄반응법)을 통한 증폭으로 HIV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가열제제를 이용해 검토를 조사한 결과 0.05ml중 최소한 2개의 HIV가 있으면 검출이 가능했으며 검출의 정밀도는 종래 RNA법의 약 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즈환자 통증 관리 방치

JAMA誌는 면역부전 바이러스(HIV)가 일으키는 에이즈의 치료에 관한 연구와 경험이 날로 축적되고 있으면서도 에이즈환자의 통증관리가 방치되고 있는 경향에 관해 보고했다.

연구에 따르면 에이즈로 인한 통증은 암환자의 통증과 맞먹으면서도 의사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증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reitbart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한 통증을 앓고 있는 에이즈환자 1백10명 중 25%는 전혀 진통제의 처방을 받지 않고 있었으며 40%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25%는 가벼운 마약성분인 코데인이 처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이 통증관리가 저조한 양상을 띄게 된 데에는 환자 자신이 부끄러운 병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점도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담당의사가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데 지장을 주게될지도 모른다는 노파심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건뉴스)

호주경찰 동성애 경찰관 채용 계획

호주 경찰은 경찰이 공동체 사회를 보다 널리 대표할 수 있도록 게이와 레즈비언을 경찰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경찰관 고용 책임자인 제니퍼 코트는 6월 3일 뉴 사우스 웨일스주 경찰서가 동성애자들을 경찰관으로 채용하고 싶어한다면 이들은 채용후 특정부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골고루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dpa. AFP=聯合)

에이즈 발병 시점 추정 검사법 개발

의사들이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에이즈 발병시점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개의 의료검사 방법이 개발됐다는 새로운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美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大 존 델러스 교수는 美내과학 年報 6월15일자 최신호에 게재된 연구보고서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 2개의 의료검사가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에이즈 치료 시작시기를 결정하는데 특히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1천6백4명의 에이즈 감염 남성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해 연구한 결과, 12개 위험 카테고리 가운데 바이러스 양이 가장 적고 T세포수가 가장 많은 최저 위험 카테고리의 환자들 중 1.7%만이 HIV감염후 6

AIDS NEWS

년내에 완전한 에이즈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카테고리인 환자들중 97.9%가 6년내에 에이즈로 진행됐다. (워싱턴 AFP=聯合)

〈인터넷 카페〉 에이즈 투병기록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에이즈는 과연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인가 하는 의문속에 수혈과 출산으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

'스타트리뷴'지의 사진작가 브라이언 피터슨은 더그 사이먼 가족에게 엄습한 에이즈와 투병기록을 지난 91년부터 6년간이나 카메라에 담아왔다가 인터넷에 '인간 정신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http://www.startribune.com/storyline/html/special/aids/Index.html>)

사이먼은 83년 수혈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HIV에 감염돼 있었다.

89년 1년 6개월 된 딸 캔디스가 에이즈에 감염됐음이 판명돼 즉시 검사한 결과 사이먼은 물론 그의 아내 낸

시도 이미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

91년 피터슨은 이 사이먼 가족과

함께 지내며 에이즈를 세상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설득, 사이먼 가족의 일상 생활을 공개했다.

에이즈치료 새지평 연 「크릭시반」 발매

에이즈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크릭시반」(성분명-indinavir)이 5월말부터 국내에도 공급된다.

메머크사의 한국법인인 한국MSD는 5월15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감염학회 학술세미나에 에이즈치료제 크릭시반 발매와 관련한 「에이즈치료 최신동향」 발표회를 갖고 5월말부터 전국 주요 종합병원부터 제품을 공급키로 했다.

크릭시반은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처음 시판되기 시작한 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를 「수명연장」으로부터 「질병관리」 혹은 「완치에의 기대」로 한단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신약으로 이번에 국내에 소개됨에 따라 에이즈 환자관리에 큰 의미를 갖게 해 주고 있다.

크릭시반은 그동안 세계 도처의 에이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결과 기존 약제인 AZT(지도부딘), 3TC(라미부딘)와 함께 3제 병용요법으로 24주간 치료할 경우 에이즈환자의 3분의 2에서 혈중 에이즈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수준(m당 500copies 이하)까지 감소하는 등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같은 치료효과는 기존의 약제인 AZT와 3TC 등의 단일 또는 병용요법에서 바이러스 퇴치효과가 미약하거나 부작용이 강해 겨우 환자의 생명

만 연장해 주었던 수준을 앞으로는 에이즈 질환자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결핵처럼 「치료하지 못하는 병」에서 「완치할 수 있는 병」으로 패러다임(고정관념)을 전환하는 계기를 주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날 발표에 나선 MSD사의 스텝 박사는 「에이즈 치료의 최신동향」에서 「과거 십수년전에 에이즈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완치할 수 있는 병으로 바뀌고 있으며 조만간 에이즈완치약도 개발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특히 AZT등 기존약제의 내성문제가 심각했으나 크릭시반과의 병용요법으로 24주간의 단기간에 에이즈바이러스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게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에이즈 공식 집계 감염자수가 6백79명이나 이중 1백28명이 사망하고 5백51명이 생존자로 남아 있으며 실제 감염자수 이보다 3~5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크릭시반 캡셀은 가격이 2천2백원으로 한달 치료비(하루 2캡셀 3회)는 39만6천원으로 다소 비싼 것이 흠이지만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복지부 오대규 보건국장등은 「에이즈분과위원회와 함께 에이즈환자의 약품치료비에 대해 정부의 지원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